

[사회]

■ 저소득층 청소년들 참여 봉사단체 '비전트립' 출범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비전 트립' 청소년 전문봉사단 발대식에서 청소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청소년 전문봉사단 150명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독거노인 70세대를 방문, 발 마사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사랑 그리운 학생들이 사랑 베풀기에 나섰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손자·손녀가 되어 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소득층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비전트립'이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비전트립은 지금까지 '발기만 해왔던'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의 자원봉사단체다. 150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광주KBS 공개홀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곧바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독거노인 찾아 마사지하고 청소 "이웃사랑 실천하며 꿈도 키워요"

'비전 트립' 소속인 광주 모 중학교 김모(13)군과 같은 학교 이모(13)양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박신자(여·82) 할머니를 찾아가 발 마사지를 해주었다. 두 달 전 한우리 복지공체에서 마사지를 배운 김군이 "할머니, 편하게 누우세요"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곧바로 방바닥에 몸을 눕힌 채 몸을 맡겼다. 발을 주무르던 김군이 "할머니, 시원하세요"라고 말하자 박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김군이 마사지를 하는 동안 이양은 방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이를 접어야 화이 예쁘게 만들어 줘요"라고 하자 할머니는 이들의 설명을 귀담아 들은 끝에 종이화를 접는 데 성공했다. '비전 트립' 봉사단 수는 모두 150명. 저소득층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비전 트립'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 소중한 의미를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광주시 서구청 주관으로 이날 발대식을 한 청소년 전문봉사단은 단순한 말 벗 퇴거에서 벗어나 ▲ 발 마사지 등 안마 ▲ 노래 가르쳐 주기 ▲ 청소해 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은 이날 2인 1조로 팀을 나눠 서구 관내 독거노인 70세대를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이들은 매일 한두 차례 독거노인을 찾아가 자원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청 관계자는 "'비전 트립'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힘든 여건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 큰 꿈을 펼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5·18묘지 관리소장 공백 장기화 5월 행사 두달 앞두고 차질 우려

새 정부의 신규 공무원 채용자체 방침으로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5·18행사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행사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박경순 소장이 지병으로 타계함에 따라 지난 1월 7~11일까지 공모를 거쳐 2월초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서기관)을 선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새 정부의 정책 골간을 입안하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가 '4급 이상 직원의 신규채용과 인사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관리소장의 선임절차가 중단됐다. 보훈처는 현재 8명의 공모자들에게 대한 서류·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더 이상 선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월째 김용호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의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되면서 5·18묘지 관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인력 채용시점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을 비롯한 지방청 단위의 조직개편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광주의 대표적인 민주성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위상 격하도 우려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인수위가 급속스럽게 채용 자체 방침을 내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관리소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관리소장이 언제 채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임 광주교검장·지검장 프로필

강력·공안·특수 등 보직 두루 거쳐

이준보 광주교검장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활달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평. '입에 자물통을 채웠다'는 기자들의 꾸밈을 들을 정도로 말을 아껴 보안 의식이 투철하고 강력, 공안, 특수 등 검찰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2000년 서울지검 소년부장으로서 재직 중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찰하던 경찰관 50여명이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10만~50만원씩 떡값성 뇌물을 상납받았던 사건을 파헤쳤다. ▲강진(55·사시21회) ▲서울대 법대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2과장, 중수2과장 ▲서울지검 소년부장, 강력부장 ▲천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광주와 두번째 인연 맺는 '기획통'

황희철 광주지검장

황희철 신임 광주지검장은 1986년 초임검사 시절을 광주에서 보낸 이후 두번째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황 지검장은 인재가 많은 사시 23회에서 선두 주자로 뽑혀왔으며, 이번 인사에서도 검내내 '빅4'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 후보로 거론됐었다. 황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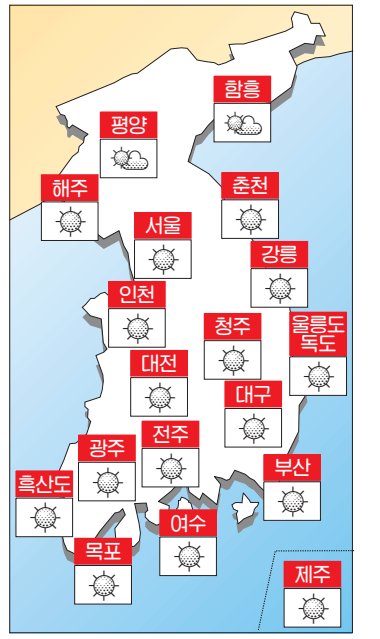
바꿔치기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수사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검찰 결정론 개선안 마련,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위 참여 등을 통해 기획통으로도 알려졌다. ▲경기 광주(51·사시 23회) ▲서울대 법대 ▲광주지검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정보화담당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출근길 안개 주의

대체로 맑겠다.

3월 10일 (음 2월 3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Location, Weather,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Seoul, Busan, Jeonju, etc.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북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3:52 썰물 < 09:03, 여수 밀물 < 10:48 썰물 < 04:32

▲해돋이 06:50 ▲해질 18:36 ▲달돋이 07:54 ▲달질 21:37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7 columns: Day, Day of Week, Weather Icon, Min/Max Temp. Days: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야생동물 피해 갈수록 늘어

전남 전력시설·농작물 등 지난해 86억 손실

작년 한해 까치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전남지역 전력시설과 농작물 등에 입힌 피해액이 8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614억원에 달했다.

환경부는 9일 2006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2006년의 755억원에 비해 19% 감소한 6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력시설의 피해액이 전체의 65.3%에 해당하는 400억7천400만원이나 돼 가장 컸으며 농작물 피해액이 166억400만원(27.1%), 양식장과 항공기의 피해액이 각각 25억5천만원(4.1%)과

21억5천100만원(3.5%)이었다. 전력시설의 경우 까치가 전봇대 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고 전선을 갇아 먹으면서 누전 사고 등을 자주 일으킨다. 까치는 전력시설 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혀 작년 한해 모두 427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이밖에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도 65억원이나 돼 이를 2가지 동물이 발생시킨 피해액은 전체의 80.1%나 됐다. 지역별로는 산림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풍부한 충남이 112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경북 104억원, 전남 86억원 순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수돗물 안전성 체험 '워터 투어' 운영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 프로그램인 '워터 투어(Water Tour)'를 운영한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동북수원지 덕남정수장과 수질연구소에

서 진행된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덕남정수사업소(062-676-7909)로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낙동강 원수 폐쇄 유입사건으로 상수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수돗물 생산과 검사 과정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ew Business Registration' (신입업자) with details on fees,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onnam Business Support Center.

Advertisement for 'Qinghe' (清河) restaurant, featuring a large '청하' logo and promotional text about their menu and location.